

젊은 작가 7인이 만드는 '엇박자의 울림'

국제갤러리에서 6월16일까지 '기울어진 각운들' 전시회

머니투데이 이연주 기자 | 2013.04.27 05:00



'기울어진 각운들' 전시를 기획한 김현진 큐레이터

"이번 전시는 어떤 주제나 방향을 설정하여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인 리듬이나 각각의 작품들의 운율을 떠올리며 마치 새롭게 작곡하듯이 준비했다고 할까요?"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 2관에서 열린 <기울어진 각운들> 전시회에서 김현진 큐레이터는 "이 전시장이 새로운 움직임의 전조를 드러내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젊은 작가 7인 남화연, 문영민, 윤향로, 이미연, 정은영, 차재민, 홍영인의 작품 20여 점은 공간 속에 그렇게 재구성됐다.

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 활동하는 김현진은 "이번 전시 제목은 이런 전시 기획의 순간을 시적 공간에 비유한 것"이며 "딱 맞아떨어지는 운율보다 복잡하지만 울림을 만들어내며 흥미로운 엇박자의 각운을 드러내는 작가들을 언급하기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공간 자체와 작품을 배치하고 구성한 방법도 참신하다.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에 기울어진 거대한 벽을 설치해 실험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점이 눈에 띈다. 더 과감하게 벽이

기울었다면 강한 리듬과 함께 신진 작가들의 도전정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미연, Bada 1,2,3.2008, drawing on paper, 22x28cm
Courtesy of the Artist /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전시장 입구 벽면에 설치된 이미연(35)의 드로잉 80여 점은 강이나 바다에서 조난 현장 구조 장면의 보도용 기록 사진을 인터넷 등으로 찾은 후 먹지를 대고 베끼면서 일부분을 남기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다.

남화연(34)은 1·2층 공간에 새로 세워진 기울어진 벽에 응답하는 조각을 설치했다. 2층에 올라가면 문영민(45)이 절하는 남자의 같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린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정은영(39)은 1950년대 우리 대중문화 장르로 부상했던 여성국극을 기록하고 연구하면서 과거 국극 배우들의 사진 자료를 슬라이드로 보여준다.

김현진은 "전시장은 조용하지만 '간섭'을 일으키는 공간으로 꾸몄다"며 "공간 안에서 작은 건축적 변화가 더해지고 작가들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6월 16일까지. (02)735-8449



홍영인, Heterogeneous Walking, 2012, Embroidery and acrylic on scenic cotton fabric, 250x200cm, Courtesy of the Artist /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스탁론] 연 3.9%(월 0.33%) 연장수수료도 없는 최고의 주식대출, 놓치면 후회
~ ☎ 1577-585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42511425682193&type=1>

프린트

닫기